

통권27호

# 후원회소식

발행일/1998.1.11.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02) 763-2606, 745-5604

새나  
근향한

행진새해



## 함께 갖는 큰 희망, 함께 누릴 밝은 내일

19 94년이 밝아왔습니다.

반외세·반봉건의 자주봉화가 활활타던 갑오농민전쟁 100년째이자 외세가 제멋대로 갈라놓은 우리 땅 이으려는 자주통일염원 50년이기도 합니다.

세계적 탈냉전 기류와는 동떨어지게 이 땅에 드리워진 핵투정의 먹구름이 지난 한해를 답답하게 하였다면 올해는 지난 역사를 되새기며 자주와 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벅찬 희망과 확실한 낙관으로 온몸 다해 실천할 해인 것 같습니다.

통일된 세상, 양심수 없는 세상을 위하여, 억압받고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을 나누려고 지난 한해에도 한결같이 성원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큰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문민과 개혁을 자처한 새정권이 출범한 지난해 초 권위주의 시대에 저질러진 과거 잘못을 깨끗이 청산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이란 대중적 요구가 팽배했었지만 한해를 다 보내도록 반민주 악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양심수를 가둔 옥문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회원 여러분의 양심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넓게 퍼져나갔고 후원 손길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가정과 일터, 단체에서 자기의 능력과 조건에 맞게 성금으로 일손으로 석방요구 집회장에 오셨습니다. 또한 많은 개별회원과 워싱톤 수도장로교회, 사무직 노동조합, 애국학생 인권복지위원회, 직장청년모임, 교회청년모임 등 나라 안팎에서 새로 회원으로 함께 하며 성원해 주셨고 양심수를 염려하는 마음은 국경을 넘어 일본천주교 사교협의회, 일본천주교 정의평화협의회 등에서 큰 뜻의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만남의 집」 마련에 적극 호응하여 주심으로 지난해 사업계획을 모두 이루게도 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출소하여 외롭게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뵈면서 정을 이어갔으며 특히 출소하신 40여명 어른들께 종합검진과 치료를 해주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러분들, 구강검진과 치료(보철)를 해주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여러분들 모두 지난해 돋보이는 후원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힘”

양심수 후원회

제가 만난 사람의 이야기

제가 만난 사람의 이야기

“나에게 끊임없는 힘”

양심수 후원회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양심수가 있게 되는 이 땅의 사회구조와 분단 현실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넓혀 나가며 그것을 옳게 뚫어나가야 할 일입니다.”

이제 양심수후원회는 1,000명이 넘는 회원으로 몸집이 커졌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도 늘어 났고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과제의 요구도 다양했으며 그것은 후원회 사업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계기가 되고, 석방운동, 후원활동, 행형문제, 모금형태 등 보다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의지들은 제6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양심수가 있게 되는 이 땅의 사회구조와 분단현실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넓혀 나가며 그것을 옳게 뚫어나가야 할 일입니다.

한때 금융실명제 실시로 어려움 없지 않았지만 이같이 후원사업 내용을 자기일로 적극 참여하고 성원해 주심으로 지난해에도 감옥안팎의 일반 후원사업과 특별사업을 계획대로 실천했습니다.

3월 19일 이인모 선생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셨고, 「만남의 집 3」도 마련되어 3월 6일 출소하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산행모임, 수련모임, 송년모임 같은 회원 직접참여 행사와 처음으로 회원 교양사업으로서 역사기행도 별탈없이 해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온전히 받아안아 실천하지 못한 집행부의 역량부족을 새삼 통감합니다. 44년을 감옥에서 보내시는 김선명 선생님을 비롯한 300여 양심수가 아직도 철창안에 있고 양심수 면회를 제대로 못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심수와 그 가족들에 대한 완벽한 형평성을 지켰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함께 가치없는 채찍을 받겠습니다. 새해엔 기어코 양심수 전원석방을 이룩해내고 모두가 주인되고 하나되는 참세상 만드는데 다함께 힘모아 내야겠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늘 건강하시고 하시려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양심수후원회 회장

권오현

## “참으로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를”

김승훈 신부(후원회 지도위원·여의도성당)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난 일들을 자주 당하게 됩니다. 어떤 때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몹시 마음이 당황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몹시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도무지 마음을 걸잡을 수 없게 되며 “왜 나만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괴로워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까지 의혹을 가지게 되고 하느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 가는 현세의 인생은 본래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지 생각해 봅니다. 인류의 역사가 생기고나서 지난 수천년동안 모든 사람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생활하여 오면서 아주 천천히 우리의 삶은 발전하여 왔습니다. 아주 조금씩 보다 나은 삶을 향하여 인간은 살아오고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발전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통하여 아주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고통이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 혼자만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더 민주화되고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이 조금씩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지금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지혜로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1994년은 참으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양심수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양심 때문에 수배를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양심수가 생겨나지 않는 그 원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후원회원 모두에게 참으로 기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영원히 살아서 교훈이 될 어머니!”

이종환(낙성대 72세)

평소에 민가협 어머님들의 용기와 대담성과 투쟁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머님들이 교육을 받았거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외세에 의하여 38선이 그어졌고 그로 인하여 반세기가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모형제 처자가 갈라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통일을 이루기 위한 투쟁과 이나라 비민주화를 민주화하기 위해 싸우고 데모를 하면 어머님들은 학생 신분으로 학업에 열중하면 되지 네가 뭘 안다고 데모에 참가하느냐고 적극 말리던 어머님들이였습니다. 그런 어머님들이 그 자녀들이 계속 통일과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다 보면 경찰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가게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한마디 만마디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자녀들이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머님들은 칼날같이 매서운 추위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국제 인권기관이나 국내 정당 사회단체의 수없이 많은 집회를 통해 악법폐지 장기수·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고 교도소내 처우개선 등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생적으로 싸워 그때 그때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였으나 기본문제인 악법 폐지와 양심수 전원 석방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피어린 투쟁은 영원히 살아서 후대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악법폐지와 장기수·양심수 전원석방되기를 기원하면서 민가협 어머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작가운 창살안에 있는  
양심수들이 따뜻한  
마음을 실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늘 이렇듯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동지들과 선배님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살리워지는가봅니다. 이 은혜를 제 삶으로 그 백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새해에도 복 많이 나누어주시고 많은 벗들의 희망으로 굳게 사시길 믿고 또 바래봅니다.

원주에서 윤정환(민애전 관련)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국분단 50년에 들어섰습니다.

금년에는 7천만 민족이 서로 화해 협력해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의 큰길에 나서는 민족의 큰찬치가 벌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전주에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새해를 맞이하여 더 건강하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후원회원님들의 따뜻한 은혜와 기우속에 항상 건강한 몸으로 겨울나기를 빌면서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들에게도 올해는 봄

별이 영광스러운 해가 될 것을 소원하면서……  
내내 안녕을 빕니다.

안동에서 조봉수(8년 복역)

기쁨도 슬픔도 우리의 삶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소중한 희망을 간직하며 영원토록 같이 할 마음으로 보살펴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광주에서 최수열(8년 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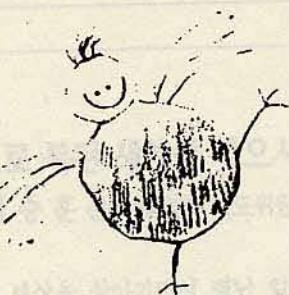
새해를 축하합니다.  
매번 보내주시는 따뜻한 정에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민가협 가족 모두에게 새해인사 드립니다.

대전역에서 신인영(28년 복역)

새해 새날 나라사랑·겨레사랑의 한길에서 큰 사랑·높은뜻 세우시고 소망하는 바가 모두 이루 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주에서 한충목(한청협 부의장)

감옥에서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이 없고, 이렇



## 희망사 94'

듯 우리 사는 세상에도 긴 겨울이 지나면 꽃피는 봄을 맞을 수 있겠지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양심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도 한 해동안 희망 잃지 않고 밝은 웃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청주에서 전경희(사노맹 사건)

살면서

가끔 저를 놀래키는 사람들을 맞닥뜨립니다.  
손과 마음이 계으른 저로서는  
감히 흥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면  
세상도, 사람도, 역사도 복스럽기 한량없어 보입니다.

울컥 그리운 사람들이  
조국의 산하 방방곡곡에  
웅크린 사자가 되어 뜨겁게 표호하고 있음을  
잠시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저리게 반성도 합니다.  
방방곡곡 동지들의 건강과 쾌투를 내내 소원하

"장원이 살아서 고을이 될 어머니!"

▶ 희망사 94'

▶ 희망사 94'

▶ 희망사 94'

겠습니다.

춘천에서 이형두(민애전)

묵은 해에는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실  
님의 건투를 축원합니다.

대전에서 안영기(33년 복역)

하얀 옥 담 너머로

셋파란 추위가 몰려 오는구나

네 이 놈 추위야!

달려드려으나

옥 중 통일 열기로

네 놈을 녹여주겠다

장흥에서 손성표(제5기 전대협)

저는 이제 세번째 겨울을 맞이했지만 건강하고  
의연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어도 욕심 없는 자의 마음은 언  
제나 자유로울 수 있으니 염려마세요.

역사를 길게 내다보고 소망을 키우는 새해가 되



감동연 선에 헌신드립니다.  
사회에는 어려운 민족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힘쓰겠습니다.  
선우를 찾는 것은 예로부터의 기쁨  
선우를 찾습니다.

‘여성미술’ 대전에서 출전합니다.

여성이 함께 가는 행복한 한 걸레서,  
여성이 자유자리 자유롭게 서자하는 한 걸레가 되시

시기 바랍니다.

홍성에서 김진주(사노맹 사건)

정역 보파리는 혼자 지면 벽차지만, 구척 담장 넘어 내민 도움의 손길들과 나누어지다 보면 훨씬 수월하게 지고갈 수 있답니다. 3백여 양심수의 정역 보파리를 나누어 지는 손길보다 복된 손이 어디 있을까요?

새해엔 이렇게 맘 착한 이들이 한껏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산에서 우진성(민애전 사건)

올해도 어김없이 역사의 저편으로 자기 모습을 서서히 감춰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미래로 흐른다”는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새해를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세요. 그리고 94년이 어머님과 우리 모두에게 광대한 희망이 펼쳐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포에서 심상득(민애전 사건)

행복드립니다.

새해에는 기운

보온 솔방 이어주세요

마음과 힘장수

이날이 오기

드디어 이틀

제 빛이 아닙니다

흐/망새 94'

열리 열리져 있다고 여겨지자 행사에 자주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 염원의 길에서 그리고 구석진 곳에 있는 저에게 끊임 없는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광주에서 이공순(28년 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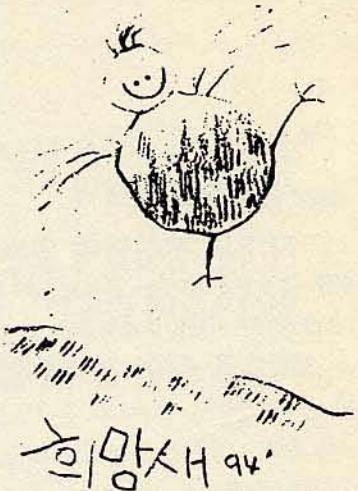
금년에는 보다 큰정치,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을 수 있는 정치, 남북이 가까워지고 정의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적 환경이 지워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여 나와 같은 사람들도 인류를 위하여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삶도 구가하고요. 여러분모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금후사업에서 성과를 바랍니다.

대구에서 오형식(26년 복역)

어둠이 깊은 연후에 새벽이 찾아오는 법이듯이, 오늘의 어려움은 밝은 내일을 예고하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많은 일 이루시어 온세상 환히 밝혀주세요.

원주에서 백태웅(사노맹 사건)



'양심수 없는 세상'이라는 민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의 소망을 여전히 소망으로만 남겨두고서 올 한해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간절한 소망은 낙숫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 큰 힘으로 그 바램들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간한 저희보다 몇 배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에게 용기주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연말인사 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는 제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 부산에서 윤창호(5·3 동의대 사건)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땀방울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해, 건강한 새해, 보람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심으로 축원 합니다.

### 전주에서 학주명(12년 복역)

그저 없없이 받기만 하고 있는 선생님의 사랑  
과 배려를 저는 언제나 갚을 수 있을까요?

새해에도 부디 건강하시어 저희들의 든든한 언  
덕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대전에서 송갑석(제4기 전대협 의장)

아름다와라

정의롭게 걷는 발걸음이여!!

미국 수도장로교회 이정우

갑슬년 새해 세배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여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는 전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전에서 홍문거

더불어 함께 가는 영원한 한 길에서,  
항상 처음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  
길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권임을 믿  
습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대전에서 임 일

든든하게 큰힘주는

양심수후원회에

씩씩한

희망새 한놈

보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서초동 혜민

생이란 무엇인가 누군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  
리라

세월이 간데도 잊을 수 없는 조국에 바쳐진 지  
난날이라고

고요한 아침에 이슬이 지듯 한생이 사라진데도  
어머니 조국은 기억하리라 그대의 이름과 걸어  
온 길을.....

새해 더욱 분발하시옵고 민가협 어머님과 회원  
여러분과 실무를 담당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축복드립니다.

제주에서 고성화

새해에는 기쁨과 보람속에

보든 소망 이루시길

이성오 엄마 박정숙

<그날>이 오기까지는

뜨거운 여름 햇볕도 천둥도 번개도

제 빛이 아닙니다.

연희동 성하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러가지 행사에 적극 참  
여하지 못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귀문 눈문을 다  
열어놓고 지켜봅니다.

늘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후원회가 자  
랑스럽습니다.

더욱 힘내세요.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욱 성숙한 후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전북 익산군 박봉순

법사회학회도 굳센 결의를 다지며 올해의 부진  
을 셧고 양심수 완전석방, 조국해방 완수의 한길  
로 일로매진 하겠습니다.

단대 법사회학회

새해 새아침.

일하는 사람이 신명나는 세상!

간힌자가 풀려나고 없는 사람이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다시한번 열심히 뛰어야  
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아침을 힘차게 맞이하시  
길 기원합니다.

낙성대에서 조창손

##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이 어둠을 불살라버려야 한다”

### 편집부

지난 12월 12일 민가협 주최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서 안치환씨가 부른 ‘자유’란 노래를 들으며 많은 후원회원들은 목이 메었을 것이다. 92년 양심수후원회 여름수련회 때 인원에 비해 몹시 좁은 방안에서 어깨 부딪치며 김남주 선생님의 시 이야기를 듣던 기억과 함께 가수의 노래소리보다,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으시며 외치시던 선생님의 강한 억양과 우렁찬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기 때문이리라.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양심수후원회 회원 한명 한명에게 모두 장하고 아름답다고 분에 넘친 칭찬과 애정을 주시고, 크고 작은 행사에 늘 함께 해주시던 김남주 선생님. 그 시인 김남주 선생님께서 투병생활중이시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선생님이 췌장암 말기이며, 두세달 정도의 시한부라는 병원 진단이 내려졌다는 것이 알려졌

다. 후원회원 모두 그러한 기사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 그 분이……”라는 생각뿐이었을 것이며 좀더 희망적인 선생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1월의 첫 소식지에 희망찬 김남주 선생님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라며 선생님의 병실을 찾아뵈었다.

김남주 선생님은 동학혁명의 땅 남도의 해남에서 “일제가 뒷문으로 쫓겨갈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고 미제가 앞문으로 쳐들어올 때 세상에 나온 소위 해방동이”로 46년에 태어나셨다. 해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근원지인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69년 전남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하였고, 재학중에 최초의 유신반대운동의 지하신문 「함성」을 제작·배포하다 구속되어 1년 정도의 투옥생활을 하셨다.

석방 다음해 선생님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창작과 비평」지에 7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고, 광주에 그 유명했던 ‘카프카 서점’을 개설하고 후배들과의 학습에 전념하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계산이라고는 없는 선생님의 다. 다시 고향으로 가서 농사일을 화연구소’를 개설하고 초대회장이 ‘파리꼼문’을 문제삼아 중앙정보국으로 도피하셨다. 그후 선생님은 인 ‘민주투쟁국민위원회’에 가입, 성원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옥중생활을 시작하시어, 각계각층 년째 복역중이던 1988년 12월에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주도적인 모임과 각종 문예공연에서 가장 선생님은 89년에 남민전 사건으로 라지를 해주시던 박광숙 전 민가들 토일이를 두고 있다.



서점은 1년만에 문을 닫게 되었 하신 선생님은 광주에서 ‘민중문’ 되셨다. 이때 후배들과 학습하던 부에서 조사를 하자 선생님은 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전위조직 활동하였고 79년 10월 남민전 구재판결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의 열성적인 구명운동에 힘입어 9 가석방조치로 출소하셨다. 출소후 활동을 하셨고 많은 민주단체의 인기있는 투쟁시인이기도 하였다. 함께 구속된 뒤에 선생님의 옥바 협 총무님과 결혼하여 5살 난 아

고려병원으로 김남주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 선생님은 마침 식사중이셨다. 잠깐의 인사속에서 선생님의 무척 마르신 얼굴과 몸을 정면으로 뵈었을 때, 작년 연말 내내 속울음을 짓곤 했던 선생님에 대한 마음 모두가 그저 나만의 감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한 통증을 강요하는 병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신 선생님의 초췌하신 모습이 너무도 낯설게만 느껴져서, 스스로가 선생님의 고통에 얼마나 무감하였는지 새삼스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김남주 선생님은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다. 검은콩과 올무, 잣으로 쑨 죽과 사골국물 등을 드시고 계신데, 비교적 큰 거부감없이 잘 소화해내고 계시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가 찾아뵈었을 때 혈압, 맥박, 체온을 재었는데 모두 정상이었고, 선생님은 천천히 드시기는 하였지만 남김없이 식사를

하셨다. 결코 병자로 보이지 않을 만큼 허리를 꽂꽂이 펴고 목도 돌리시고 발목을 주무르기도 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뵈며, 참으로 강인한 분이며 그 때문에 어떤 병이라도 손을 들고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 는 믿음도 생겼다. 권오현 회장님은 계속 어깨와 목을 주물러주시면서 병세를 물으셨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간호인의 설명이었다. 특히 통증이 무척 심하셔서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낮에 주무셔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면회를 오지 말기를 부탁한다는 간호인의 이야기에 서둘러 방을 나왔다.

며칠전 교보문고를 가서 김남주 선생님의 책을 찾는데, 서가에서 아무리 되짚어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서가 밖의 베스트셀러 시 모음코너에서 나는 선생님의 6개의 시집 -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사랑의 무기」, 「솔직히 말하자」, 「사상의 거처」, 「이 좋은 세상에」- 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김남주 선생님 시에 대한 독자들의 커다란 사랑을 피부로 느끼면서 새삼 선생님의 건강을 빌었다. 우리 모두 김남주 선생님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막연히 선생님의 병에 대한 안스러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선생님의 병은 오래고 고된 수형생활 속에서 얻어진 커다란 적이기에, 온힘을 다해 그 적과 싸워 이기자고 다짐하고 확신하자. 식사를 하시면서 문득문득 우렁찬 시낭송을 하실 때와 같은 시선으로 어디 먼 곳을 바라보시던 선생님은 아마도 그 커다란 고통속에서도 선생님의 힘찬 시를 다짐하고 계신 것이라.

“오 지하의 시간이여 표독한  
야수의 발톱에 떨어진  
살점이여 살점으로 퇴구는  
육신이여 영혼이여  
죽어서는 안된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이 어둠을  
불살라버려야 한다”라고 (눈을 모아 창살에 뿌려도 중에서)

- 김남주 시인 쾌유를 비는 성금을 해주실 분은 국민은행 019-21-0596-067 예금주 이승철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이런일이 있었어요

12. 1 : 민가협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12월 모임이 민가협 사무실에서 있었어요.
12. 2 : 민가협 열번째 목요집회가 오후 2시 텁골공원 앞에서 성남 노래마을, 문의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거리음악제로 열렸습니다.
12. 5 : 정부는 “쌀개방만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수입개방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2. 6 : • 후원회 기획모임이 '93 송년모임,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 연하장 보내기 등을 안전으로 하여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 현대교회에서 회비 5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끊임없는 따뜻함에 늘 감사합니다.
12. 7 : “쌀 개방반대 전국 대책위원회” 주최 서울역 광장 집회에 민가협 회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12. 8 : 후원회 12월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양심수에게 영치금 보내는 문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2. 9 : • 민가협 목요집회가 서총련 노래단 “조국과 청춘”과 함께하는 거리음악제로 열렸습니다. 감옥에서 온 양심수 편지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묶었습니다.  
• 출소장기수선생님들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의료인께서 950,000원을 건강기금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2. 10 : •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며 그리고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가 여덟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 불교인권위 창립 3돌을 기념하여 한국의 인권현실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권오현 회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12. 11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초청 조찬간담회가 국회본청에서 민가협 회원 40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12. 12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네번째 공연 “양심수가 없는 나라”가 한양대 올림픽 체육관에서 8,0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이후 100여명이 회원가입카드를 내 주셨습니다.
12. 14 : • [후원회소식] 26호 950부를 발송하였습니다.  
•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인 권혁명 학생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 현대교회에서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으로 500,000원을 더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12. 16 : • 민가협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94년 구학협을 이끌어나갈 회장단 선출이 있었는데요, 모두 90분이 참석하셔서 70표를 얻으신 서경순 어머님이 회장님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서울연합 의장, 이천재 선생님이 쓰신 '희망'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12. 17 : • 후원회 회원이신 한금주 님의 3자매께서 360,000원을 책값에 보태달라며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문·사회과학출판사 영업부 모임(대표: 살림터 영업부장 정광일 님)에서 양심수에게 보내달라며 좋은 책 70권을 기증하셨습니다.  
• 인천 무지개동산 어린이집 일꾼들이 양말 300켤레를 주셨습니다. 어려운데도 통크게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 18 : 구로고 도서부 동문모임에 권오현 회장님이 함께 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2. 19 : 양심수후원회 '93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출소장기수 선생님을 비롯하여 후원회 지도위원으로 계시는 문익환 목사님, 박현서 선생님과 회원 여러분등 모두 91명이 함께 하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2. 20 : 독일 토요기도회에서 성금 661,89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머나먼 곳에서도 늘 조국의 숨결을 기억하시고 힘 주셔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12. 21 : •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에서 1,400,000원을 양심수를 위한 성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적지않은 성금을 선뜻 양심수를 위해 모아 오셔서 감사합니다. 양심수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것입니다.  
• 지난해 6월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치사협의로 구속되었던 배병성 학생이 1심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집행유예로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민가협 사무실에 인사차 다녀갔습니다.  
•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거리음악제가 탑골공원앞에서 있었습니다.
12. 22 : • 유가협 후원회 송년의 밤이 유가협 사무실 한울삶에서 있었습니다.  
•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거리음악제가 허정숙, 박진원, 임수경 님과 함께 탑골 공원앞에서 있었습니다.  
• 경희의료원에 입원, 치료중이신 시인 김남주 선생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수도장로교회에서 (860 \$) 692,88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2. 24 : • 성탄 가석방이 있었습니다. 양심수 44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대구교도소에 가서 출소자를 환영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창살안에 여전히 남아 또 한번의 시린 겨울을

맞고 있는 양심수를 면회했습니다.

• 대구카톨릭병원에 입원중이신 김종호 선생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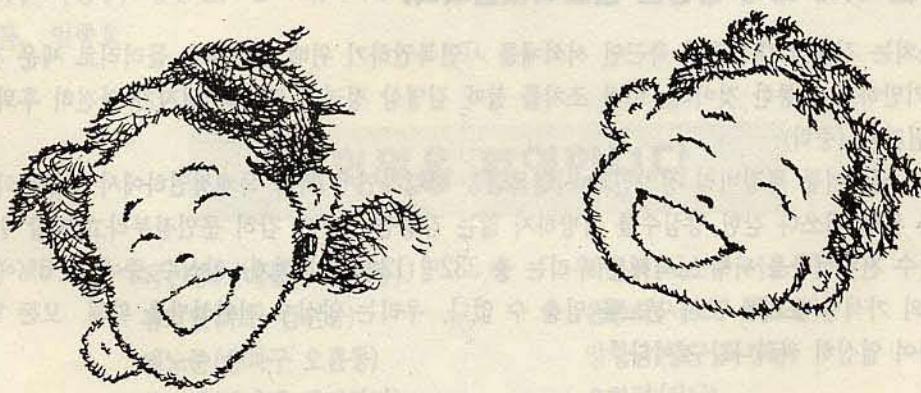
12. 26 : • 워싱턴 수도장로교회에서 양심수에게 보내온 카드를 발송했습니다.  
• 고려병원으로 옮기신 김남주 선생님 문병 다녀왔습니다.

12. 27 : 전대협 동우회에서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과 민가협, 유가협 어머니들을 모시고 송년모임을 했습니다.

12. 24 : 성탄 가석방으로 출소하신 신승철(기아자동차)님께서 인사차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12. 29 : • 양심수 214명에게 영치금을 발송해드렸습니다.  
• 교회여성연합에서 정성껏 한올한올 짜서 모아오신 따뜻한 텁조끼를 광주, 대구 장기수 선생님과 여성양심수에게 보내드렸어요.  
• 성탄 가석방 출소자 김동수(수원대생), 한경임, 이승미(이상 민애전)님과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되어 12. 29 만기출소하신 강제윤 님께서 사무실에 인사차 방문하셨습니다.

12. 30 : • 안국동 안동교회 청년부에서 황홍렬 목사님과 청년회원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어요.  
주신 성금 감사히 받았습니다.  
• 민가협 열두번째 목요집회가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리음악제로 이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목요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 워싱턴 수도장로교회에서 보내주신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을 서경원, 이현치 님 가족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 현대교회 자녀돕기 성금 500,000원을 10분의 양심수 자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 출소 선생님 10분과 만남의 집 1, 2, 3에 모두 700,000원 지원금 드렸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 김영삼 정권은 12월 24일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첫째 43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69세)씨를 비롯한 장기수는 이번 가석방 조치에서 제외되었고 둘째 93.10.25. 6공수배자 230명에 대해 수배해제조치를 해놓고도 같은 이유로 구속된 송갑석, 김종식(전대협 4, 5기 의장)과 한충목(한청협 부의장) 등 청년, 학생, 노동자들을 석방조치하지 않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셋째 이번 조치는 만기석방을 앞두고 있는 양심수 44명을 조금 앞당겨 석방시켰을 뿐이다. (가석방된 양심수 중에서도 만기일을 이틀 앞둔 양심수가 2명, 나흘 앞둔 양심수가 2명이고 44명의 40%가 2개월내로 만기석방될 양심수였다.)

### 가석방된 양심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종린, 서순은, 임동광, 김종환, 전문환, 이승미, 한경임, 조현일, 정덕영, 임지수, 한삼현, 최일봉, 김진철, 김정기, 정성준, 이세란, 이용철, 김호상, 김정동, 이현웅, 진성준, 정남규, 박일진, 이종원, 하진경, 박원택, 라재봉, 송두실, 정승영, 안상목, 신승철, 정하백, 이병현, 김현준, 오성훈, 황종하, 이현구, 강정철, 방봉수, 김동수 (총 44명)

### 민가협은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인 서석재를 사면복권하기 위해 몇 사람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볼 때 김영삼 정권의 민주화 의지가 완전히 후퇴한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부정선거, 뇌물여등 부정비리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애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는 김영삼 정부가 감히 문민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총 332명(12월23일 현재) 양심수 중에 13.6%에 불과한 44명의 가석방 조치를 보며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

##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안학섭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양심수 선정과 석방운동 전개!!**

44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안학섭씨가 국제사면위원회의 양심수로 선정되었으며 전 세계의 국제 사면위원회의 200여개의 지부에서 석방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선명.안학섭씨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 전개하며 한국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에 석방촉구서한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공식입장을 천명한 보고서(AI INDEX: ASA 25/41/93 )를 요약해드립니다.

“AI는 한국전쟁(1950-53) 때부터 수감된 두 양심수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 한다. 안학섭과 김선명은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고문을 당했고 부당하게 형을 받았고 그들이 계속 수감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전향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40여년 넘게 수감이 되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이다. (후략)”

**새해을 맞이하여 특히 감옥에서 많은 분들이 연하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양희철, 이상철, 김동기, 류정식, 손병선, 정명섭, 이병일, 이재룡, 이경찬, 박동운, 김용태, 김철, 박홍순, 석달윤, 방양균, 최수일, 손유형, 김기천, 이은경, 정주용, 장민성, 한철수, 태재준, 김병주, 장기영, 진창식, 조덕원, 은수미, 박영희, 박미경, 이철우, 정인수, 강용주, 이성우, 김동관, 김책, 백경한, 황동하, 이장형, 남진현, 신동욱, 김기수, 최종만, 심상득, 임종호

###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최은영(서대문구 신촌동)

김기원(부산 감전동)

배노준(송파구 오륜동)

북행(경기대 행정학과)

박선희(인천 십정동)

신승철(구로구 시흥본동)

박승희(관악구 신림10동)

박점식(서초구 서초동)

윤종희(서초구 서초동)

양형남(중구 북정동)

오현령(성남)

김선빈(관악구 신림동)

유준석(관악구 신림동)

김성수(중구 남창동)

## 12월에 구속된 양심수

고용철, 김남수, 김선희, 박종인, 봉철의, 심우춘, 유상렬, 이판재, 장평기, 정찬호, 김동성, 송원주, 최유락 - 93. 12. 16구속 민정련 광주지부 사건

김형렬 - 12. 8구속 「진보저널」 직원으로 PC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구속

정낙훈 - 12. 3구속 건국대생, 자민통 사건

진형언(광주대 투쟁국장), 최치현(광주대 총학생회장) - 12. 1구속

김기창 - 12. 3구속 조선대 총학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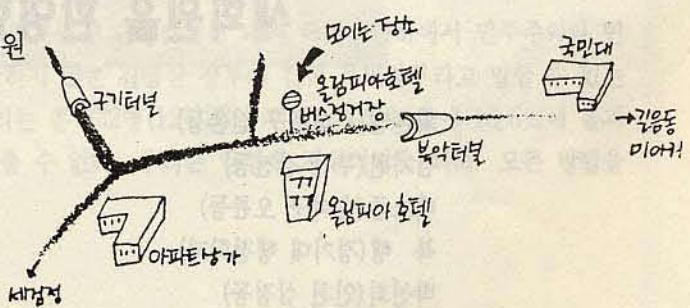
박영진 - 11. 25구속 호남대 총학생회장

이동희(남총련 조통위원장), 윤민호(전남대생) - 12. 27구속

## 산 · 행

94년 첫 겨울산행을 북한산에서 시작합니다.

- 언 제 : 94년 1월 23일 (일) 이른 10시 정각
- 어 디 : 북한산
- 모이는 곳 : 평창동 올림피아 호텔 앞 버스정거장
- 버스노선 : 8, 135, 135-1, 522
- 준비물 : 각자 도시락, 회비 3,000원



## ◆ 양심수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온 나라에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국의 분단의 상처를 가슴 한켠에 묻어  
둔 채 350여명의 양심수들은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민정부'라는 유행어도 양심수들에게는 감옥  
밖에서나 존재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들 양심수들 중에는 적개는 10년, 심지어는 43년 동안  
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7명이나 됩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 것  
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 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의 회원이 모여 첫결음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 않고, 헛빛 한 점 자유롭게 맛볼 수 없는  
분들께 감옥 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 사  
랑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의 길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 하  
지 않으시겠습니까?



### ■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①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② 3,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께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③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④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민 주 화 실 천  
기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763-2606 (F) 745-5604

□ 1 □ 0 — □ 5 □ 4 □ 2

###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탁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 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